

5. 2010년대 이후(2010년~2021년)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연구는 기본연구과제 416편과 수탁과제 632편으로 총 1,048편이다. 이 절에서는 2010년대 이후 다루어졌던 주요 연구주제로 고등교육재정, 대학공유체제, 대학평가·진단,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소규모학교, 미래교육, 온종일 돌봄, 인성교육, 탈북청소년교육, 교육여론조사, 교원정책, 대학교수·학습, 교육환경·시설의 14개를 선정하였다.

가. 고등교육재정

2010년대 들어 정부의 고등교육 질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 기조 아래,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으며 관련 정책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고등교육재정은 비단 개별 대학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아래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란 등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및 배분, 운용 등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2019년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연구와 같은 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가 있다.

【표 III-74】 2010년대 이후 고등교육재정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RR2010-15)
2011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RR2011-15)
2015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CR2015-15)
2015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표준단가 산정 방안 연구(RR2015-18)
2017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RR2017-10)
2018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RR2018-20)
2019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RR2019-14)
2019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RR2019-17)
2020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RR2020-15)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김지하 외, 2019)」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배분 정책과 대학의 재정 배분 및 운용 실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재무구조 개선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의 합리성 제고 등 정부와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배분 및 운용 개선방안과 과제를 제안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33).

같은 해 수행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서영인 외, 2019)」는 고등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설정하고 확보 방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21). 구체적으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의 기본 방향 아래, 직접 확보와 간접 확보,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추진, 지방교육재정과 연계 등 추진(안)을 마련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21).

2010년대 이전에 수행된 고등교육재정 주요 관련 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분석 연구나 대학재정 실태 및 성과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5】 2010년대 이전 고등교육재정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95	대학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방안 연구(RR1995-12)
2001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CR2001-15)
2004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CR2004-62)
2006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RR2006-15)
2009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 분석(RR2009-15)

나. 대학공유체제

고등교육 분야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대학 간 경쟁 중심의 체제에서 전체 대학의 집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적 대안으로서 대학의 공유성장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간 대학 격차, 대학 운영 방식 및 체제에 대한 변화 요구 증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대학공유체제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관련 법 개정이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도 병행해 왔다.

대학의 공유성장 관련 연구가 거의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9년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와 2021년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였다.

■ 표 III-76 ■ 2010년대 이후 대학공유체제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9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RR2019-15)
2021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RR2021-08)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조옥경 외, 2019)」는 우리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학 간 유·무형의 자원공유 및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탐색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22). 공유성장의 의미와 국내·외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구축 정책 및 사례 분석,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관련 대학의 실태 및 인식과 요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대학의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유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22).

이어 2021년에 수행한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조옥경 외, 2021)」는 대학 간 공유·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전략과 개선·발전 과제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조옥경 외, 2021: iii). 구체적으로 대학 간 공유·협력 주요 정책 분석, 대학 간 공유·협력 관련 법·규제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대학 현장의 문제 인식 및 요구 분석 등을 추진하였다(조옥경 외, 2021: iii). 이를 통해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질 관리 기제 도입,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에 기초한 공유·협력 설계, 공유·협력 촉진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다(조옥경 외, 2021: ix-x).

다. 대학평가

대학의 양적 확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효과를 가져 온 측면이 있으나 점차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2010년대 이후 시기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기능이 강화되고 각종 대학평가제도가 마련·추진되었다. 이러한 평가에는 대학기관평가인증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 국립대학법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대학법인운영성과평가 등이 있다.

다만 대학평가가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등 평가의 적절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동시에 평가 수가 많아지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학평가에 대한 정비 혹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대학평가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7년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가 있다.

【표 III-77】 2010년대 대학평가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5	대학평가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데이터 분석 연구(RR2015-41)
2017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RR2017-09)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임후남 외, 2017)」는 대학평가 수가 많아지고 영향력 또한 커진 상황에서 고등교육 평가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임후남 외, 2017: 265). 구체적으로 평가 유형 분류체계 및 실태진단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평가체제 실태 및 개선 요구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임후남 외, 2017: 267-274).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 정부가 지원하는 평가,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를 지향해야 하며, 세부 과제로 유사 평가 간의 조정 및 연계, 종합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임후남 외, 2017: viii).

대학평가 관련 연구는 2010년대 이전에도 수행되어 왔으며, 주요 관련 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대학원 평가 기준이나 척도 개발 연구, 대학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 연구, 대학정보공시제를 활용한 대학평가 모델 개발 연구 등이 추진되었다.

【표 III-78】 2010년대 이전 대학평가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98	교육대학원 평가 기준 및 척도 개발 연구(CR1998-32)
2004	대학평가의 메타평가 연구(CR2004-45)
2005	교육대학원 평가영역 및 기준 개발 연구(CR2005-29)
2008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 정립 연구(RR2008-07)
2009	대학정보공시제를 활용한 대학평가 모델 개발 및 평가 연구(RR2009-16)

라. 고교다양화

우리나라는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후 정부에 따라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0년을 전후로 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사회적 요구나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교 유형이 확대·다양화된 것과 차별화되었다(황준성 외, 2013: 15).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고교다양화 정책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의 운영을 포함하며, 고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향상, 고교교육 만족도 제고, 사교육 경감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황준성 외, 2013: 313).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대 이후 고교다양화 정책을 직접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2013년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있다.

【표 III-79】 2010년대 고교다양화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3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RR2013-05)
2015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및 실태(RR2015-26)
2019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RR2019-25)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황준성 외, 2013)」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체제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고교다양화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하위 정책으로서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고교다양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황준성 외, 2013: 313). 구체적으로 정부 문건을 통한 정책 분석 및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의미연결망분석(SNA), 언론

사 칼럼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TA)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교다양화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수직적 다양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의 진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한 일반고의 경쟁력 제고를 제안하였고,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기숙형고와 마이스터고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또한 제시하였다(황준성 외, 2013: 316-319).

2010년대 이전에 수행된 고교다양화 주요 관련 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연구,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특성화고등학교 실태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0】 2010년대 이전 고교다양화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8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RR1984-21)
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RR1985-32)
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CR1995-01)
1999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CR1999-08)
2000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RR2000-02)
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연구(1)(RR2003-02)
2003	사립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1)(RR2003-03)
2005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평가(CR2005-16)
2007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RR2007-05)
2008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RR2008-01)

마.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⁵⁷⁾를 의미한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을 핵심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라는 학교급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 것이 여타의 물리적 개선보다 핵심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신철균 외, 2014: 35)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대에 자유학기제 관련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이나 평가 방안 연구, 전면 확대 방안이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중단연구 및 정책 성과분석

5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111&cid=43667&categoryId=43667\(2022.3.3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111&cid=43667&categoryId=43667(2022.3.31.))

등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01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가 있다.

【표 III-81】 2010년대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RR2014-17)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CR2014-07)
2015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CR2015-10)
2015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일반학기와의 연계를 중심으로(RR2015-24)
2016	자유학기제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초·중·고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RR2016-11)
2016	자유학기제 중단연구(CR2016-12)
2018	자유학기제 정책 성과분석(CR2018-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신철균 외, 2014)」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론적 모형 정립 및 학교 현장의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준비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정책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 분석, 연구학교와 희망·일반학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신철균 외, 2014: iii).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구성원 인식 개선, 교육 활동 운영 지원, 인적·물적 지원 환경 구축 측면에서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언으로 거시적 정책과 문화의 변화, 교사들의 학교 내 학습공동체 형성 방안과 확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신철균 외, 2014: v-vi).

바. 소규모학교

소규모학교는 과거 농산어촌 지역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근래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구분을 넘어 소규모학교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1982년부터 추진해 온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수업 집중도나 학업 성취 등의 측면에서 일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시에 통학 거리로 인한 불편함이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사의 개별 지도 축소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동시에 존재하였다(이혜영·김지하·마상진, 2010: iii). 따라서 비단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소규모학교 관련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나 소규모학교 성공사례 분석, 소규모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2010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연구와 2021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가 있다.

【표 III-82】 2010년대 이후 소규모학교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RR2010-07)
2013	소규모학교 성공사례 분석 연구(CR0213-41)
2014	소규모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CR2014-51)
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RR2021-01)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이혜영·김지하·마상진, 2010)」연구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과를 교육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구 변화, 주민의 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통폐합의 기준이나 방법 등의 문제 및 통폐합 이후 학교 실태 분석을 통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이혜영·김지하·마상진, 2010: i).

작년에 수행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권순형 외, 2021)」 연구는 근래 인구감소 및 신도심 개발 등에 따라 학교규모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 모색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권순형 외, 2021: iii). 구체적으로 국내·외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소규모학교 정책접근의 전제조건 검토 및 지원 정책의 효과 검토,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현황 및 추세, 학교규모 영향요인 분석,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 방안 관련 요구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권순형 외, 2021: iv-vi).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 운영 방안으로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행정업무 구조 및 소규모학교 교원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권순형 외, 2021: x).

2010년대 이전에 수행된 소규모학교 주요 관련 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199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영 개선 방안에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3】 2010년대 이전 소규모학교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92	농·어촌 소규모 국민학교 경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RR1992-31)
1993	농·어촌 소규모 중등학교 경영개선 방안 연구(RR1993-10)

사. 미래교육

인구지형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변화는 관련 연구 추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미래 교육비전 연구나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 조성 방안 연구 등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8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연구와 2016년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 초중등교육영역」,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 고등평생교육영역」을 들 수 있다. 특히「교육개혁 전망과 과제」연구는 2016년과 2017년, 2개 년도에 걸쳐 수행되었다.

【표 III-84】 2010년대 미래교육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	미래 교육비전 연구(RR2010-08)
2012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 2013-2017년의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RR2012-09)
2015	학생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 조성 방안(RR2015-04)
2016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 초중등교육영역(RR2016-28)
2016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 고등평생교육영역(RR2016-29)
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I): 초중등교육영역(RR2017-01)
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I): 고등교육영역(RR2017-02-01)
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I): 평생교육영역(RR2017-02-02)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RR2018-01)
2019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과제와 미래방향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류방란 외, 2018)」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에 주목하여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류방란 외, 2018: i).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적 이슈 분석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교육 대응 논의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대응 방향을 전망함과 동시에, 분권적 학습 생태계 구축, 탈표준화, 탈경직·유연화, 다양한 학습자 상 구현을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 혁신, 학습자와 교육 이해에 기초한 에듀테크 활용, 격차 대응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류방란 외, 2018: ii-iv).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 초중등교육영역(정미경 외, 2016)」연구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 영역을 탐색하고자 하였다(정미경 외, 2016: 4). 구체적으로 STEEP 분석을 통한 미래 사회 전망 탐색 및 정부별 교육개혁 과제 분석을 통한 한국교육의 현황 진단 등을 통해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혁신 영역을 제안하였다(정미경 외, 2016: 5-6).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I): 고등평생교육 영역(홍영란 외, 2017)」연구는 2030년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 전망 탐색 및 주요 정책이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홍영란 외, 2017: ii). 구체적으로 미래사회의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 사회구조,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관련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국내·외 고등평생교육정책 변화를 탐색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개혁 관련 주요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홍영란 외, 2017: ii). 이를 바탕으로 고등평생교육정책 개혁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개혁의 세부방향을 제안하였다(홍영란 외, 2017: ix-xii).

2010년대 이전에 수행된 미래교육 주요 관련 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미래산업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이나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 한국교육비전,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연구 등이 다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85 ■ 2010년대 이전 미래교육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87	미래산업사회를 지향한 교육발전방안(RR1987-01)
1991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II)(RR1991-24)
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III) : 총괄편(RR1992-42)
1997	한국교육비전 2020(II) : 한국교육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모습(RR1997-07)
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RR2006-10)

아. 온종일 돌봄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등 양육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돌봄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방학, 긴급 상황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온종일 돌봄은 그동안의 돌봄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고 새로운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온종일 돌봄’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는 이전에도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최근 온종일 돌봄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정부가 발표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합동, 2018)이 촉매제가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정부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지방-돌봄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방안에서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와 지자체(지역사회 또는 마을)의 협력을 통해 짜임새 있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2010년대 이후 본격적인 돌봄 및 온종일 돌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성과분석 연구(CR2012-16)」나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개발(CR2014-01)」등과 같이 초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중심으로 한 돌봄 정책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돌봄교실 확대 방안(CR2014-5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CR2019-1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지역돌봄 운영 지원방안(CR2020-04)」과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다룬 연구가 제시되었다.

【 표 III-86 】 2010년대 이후 온종일 돌봄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2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성과분석 연구(CR2012-16)
2012	돌봄강사의 자격 표준화 및 신분 안정 방안 연구(CR2012-21)
2014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모델 개발(CR2014-01)
2014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돌봄교실 확대 방안(CR2014-53)
2014	초등돌봄교실 운영실태 조사 -우수사례를 중심으로(CR2014-71)
2015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환경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RR2015-37)
2018	학생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CR2018-27)
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CR2019-10)
2020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지역돌봄 운영 지원방안(CR2020-04)
2020	초등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CR2020-10)

이들 연구 중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CR2019-10)」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모형(과밀학교형, 학교활용형, 농산어촌형/도농복합형)을 중심으로 실제 선도 사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주요 성공 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현장 연구로 꼽힌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터 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생적 돌봄 생태계 지향, 가정 돌봄-공적 돌봄, 보편적 돌봄-선택적 돌봄 간의 균형과 조화, 아동 중심의 통합형 돌봄체계 지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 중심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전략 활용 여건 마련, 온종일 돌봄 체계의 실질적 활성화 및 효율화 기제 구축의 각 영역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이희현 외, 2019:iv).

자.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행동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에 이후 주목받은 교육 영역이다. 특히 지나친 학업성취도 지향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능력이 저하되고, 국민들마저도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꼽고 있는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역시 2010년 이후 초·중등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2010년 전후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현장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9년에 수행된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RR2009-09)」를 시작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인성 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등이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이 제정된 전후 인성교육의 현장 정착을 위한 다양한 기본연구과제 및 수탁연구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RR2015-16)」, 「인성교육 기반구축 정책연구(CR2016-15)」, 「인성교육 실태조사 연구(CR2016-32)」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III-87】 2010년대 인성 교육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1	창의적 인성 검사 개발 연구(CR2011-43)
2011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CR2011-49)
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CR2012-36)
2012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CR2012-43-1)
2013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RR2013-01)
2013	학교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RR2013-01-1)
2013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방안 연구(CR2013-02)

연도	연구제목
2014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 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 자료 개발 (RR2014-02)
2014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II):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제비교 (RR2014-15)
2014	초·중등 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CR2014-39)
2015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I): 중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 개발 (RR2015-08)
2015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RR2015-16)
2016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V): 고등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 개발 (RR2016-02)
2016	인성교육 기반구축 정책연구(CR2016-15)
2016	인성교육 실태조사 연구(CR2016-32)
2016	인성교육정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CR2016-33)
2017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CR2017-24)
2018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방안 연구: 학급자치 실태를 중심으로 (CR2018-35)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 II, III, IV)(RR2013-01, RR2014-02, RR2015-08, RR2016-02)」는 초·중등학생의 인성교육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2013년에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구 자료 개발이 각각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문헌 및 정책분석,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인식 및 실태조사, 현장 관찰 및 심층 면담, 운영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내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부서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학교 여건 및 문화 형성 측면, 학교급 간 차별적인 인성교육 내용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측면, 교사-학생 간의 대화 채널 및 상담 지원 강화 등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질 제고 측면,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및 자료 개발·보급 지원 등의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 강화 측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등의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의 연계 기능 강화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책 제언들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10~11).

차. 탈북청소년 연구

탈북청소년 연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탈북학생의 규모에 대응하고, 탈북학생들의 교육 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4월 기준 북한 이탈주민수가 15,223명에 이르고, 이들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1,143명에 이르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탈북학생들의 원만한 학교 교육 적응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한만길 외, 2009:3).

사실상 북한 이탈주민이나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전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1999년 수행된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RR99-11)」를 시작으로 2004년과 2009년에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과정 실태분석 연구(RR2004-02)」와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RR2009-10)」를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하는 등 2000년대에도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표 III-88 】 2010년 이전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99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RR99-11)
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 연구 : 탈북 학생의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CR2000-47)
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과정 실태분석 연구(RR2004-02)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RR2009-10)

더불어 2009년에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해당 센터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연구(CR2010-08-1)」, 「탈북청소년 초기적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CR2010-08-7)」, 「탈북학생 학교 및 사회적응 진단도구 개발(CR2010-08-8)」 연구들이 초기 탈북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탁연구 과제들이다.

【 표 III-89 】 2010년대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연구(CR2010-08-1)
2010	탈북 여성을 위한 가족문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CR2010-08-3)
2010	탈북학생을 위한 교원(일반교사, 관리직)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연구(CR2010-08-4)

연도	연구제목
2010	탈북학생용 기본 교육과정 총론(시안) 개발 연구(CR2010-08-6)
2010	탈북청소년 초기적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CR2010-08-7)
2010	탈북학생 학교 및 사회적응 진단도구 개발(CR2010-08-8)
2011	무연고 탈북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CR2011-26-2)
2013	탈북학생 학업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CR2013-15)
2014	유형별 탈북학생 교육실태 및 교육지원 요구 분석(CR2014-25)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를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심층적인 분석은 물론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RR2009-10)」에서 탈북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된 이후, 탈북학생에 대한 종단적 추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장기간의 추적 조사 연구가 착수된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2010~2015년까지의 1주기 연구와 2016년 이후의 2주기 연구로 구분된다. 1주기 연구가 주로 탈북학생에 대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종단적 분석을 시행하였다면 2016년부터 시작된 2주기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의 일부에 신규 패널이 추가되어 총 30명의 탈북청소년에 관한 질적 종단연구가 진행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6: 79~83). 2주기 연구는 탈북청소년으로 명명되는 이들 중에는 북에서 태어나지 않고 탈북의 경험도 가지지도 않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탈북청소년 중단연구”를 “북한배경청소년 중단연구”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 중이다.

【 표 III-90 】 2010년대 이후 탈북 청소년(북한배경청소년) 종단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2015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Ⅰ,Ⅱ,Ⅲ,Ⅳ,Ⅴ,Ⅵ)(RR2010-14, RR2011-30, RR2012-08, RR2013-07, RR2014-07, RR2015-13)
2016~2019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연구(Ⅰ,Ⅱ,Ⅲ,Ⅳ)(RR2016-15, RR2017-17, RR2018-04, RR2019-10)
2020~2021	2주기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중단연구(Ⅴ,Ⅵ)(RR2020-21, RR2021-18)

카. 교육여론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는 교육과 관련된 현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조사이다. 특히 이 연구는 조사의 목적과 성격상 각종 언론 및 연구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높다. 애초 1999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시행된 교육여론조사는 장기적인 국민의 인식과 시각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2년 주기로, 2011년 이후에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가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조사의 목적과 대상, 표집의 수는 매년 조금씩 조정되어 왔다. 특히 1차 조사(1999년) 목적이 '교육개혁 정책 중간 점검'의 성격이 컸으나 2차 조사(2001년)부터 6차 조사(201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황과 상황 변화에 대한 추세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후 7차 조사(2012년)부터는 그동안의 조사 목표에 더해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인포그래픽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I-91】 교육여론조사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RR99-05)
20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RR2001-08)
200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RR2006-24)
200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RR2008-31)
2010~20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RR2010-03, RR2011-23, RR2012-24, RR2013-35, RR2014-24, RR2015-14, RR2016-23, RR2017-23, RR2018-03, RR2019-27, RR2020-33, RR2021-3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가 매년 진행된 2010년부터는 연구 목록을 병합하여 제시하였음

2021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교육정책, 학교,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대학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 9개 영역에 대해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수행되었다. 주요 영역별 시사점으로는 교육정책에서는 교육의 출발선 평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중요성 인식,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에 대한 강조, 학교 영역에서는 학생 중심의 개별화·맞춤화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교사 영역에서는 교직 개방에 대한 지속적인 찬성 의견이 관찰되었다. 또한 대학교육에서는 대학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대한 제고, 대학 교수 역량 강화 필요성이, 교육 현안과 미래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업 부진의 우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성과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1:113~114).

타. 교원정책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 정책 관련 연구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기본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를 통틀어 “교원”에 대한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과제는 1973년에 수행된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RR-02)」로 확인되며,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이후 수행된 기본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 중 “교원”과 “교사”키워드가 포함된 과제만 244건에 달한다. 이처럼 교원 정책은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의 대상이었다.

2010년대 이후 교원정책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전의 교원 정책 연구들이 주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와 “교원 정책 혁신”에 대한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 연구가 강조되면서 2010년 이후로는 교원에 대한 대규모 조사 연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표 III-92】 2010년대 이후 교원 정책 관련 주요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	교원 관련 평가 시스템 재정립 방안 연구(RR2010-10)
201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 현장 교원의 교직경험을 중심으로(RR2010-11)
2010	교원연수기관 평가 모형 개발 연구(RR2010-29)
201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 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RR2011-07)
201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 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RR2011-07)
2014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 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 자료 개발 (RR2014-02)
2014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RR2014-04)
2014	교원 중·장기 수급 전망 체계 구축 연구(RR2014-25)
201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진단과 과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RR2015-03)
2015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V): 교원역량지수 개발 연구(RR2015-28)
2015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RR2015-22)
2016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V): 고등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 개발 (RR2016-02)

연도	연구제목
2017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RR2017-06)
2018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I)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연구(RR2018-13)
2019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II) : 교원 인사제도 혁신 과제 연구(RR2019-03)
2019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IV)(RR2019-22)
2019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RR2019-25)
2020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창의력과 비판적사고력: 수업사례 및 교수학습지원을 중심으로 (RR2020-13)
2020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II)(RR2020-04)
2020	교원종단연구 설계 방안(II)(RR2020-28)
2021	학교차지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발급 예정)
202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중심으로(RR2021-04)
2021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I)(RR2021-31)

※ 2010년대 이후 수행된 교원 정책 관련 연구 중 해당 표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 과제만 제시하였음

다양한 교원관련 연구 중 2017년부터 3년간 진행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과제 (I, II, III)(RR2017-06, RR2018-13, RR2019-03)」는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체제 변화에 따른 교원의 역할 재정립 및 교원 정책 혁신을 위해 1차년도(2017년)에는 교직 입직 전 예비교사의 양성, 선발, 채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이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혁신,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교원양성체제 혁신, 신규교사 임용 고사 및 채용 혁신, 교장 채용 혁신 등 5대 혁신 영역에 대한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34~35). 2차년도(2018년)의 경우 현직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교직환경 변화에 따라 교사전문성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교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8: 75), 3차년도(2019년)의 경우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방안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과 수급, 정원,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직무설계, 혁신기반 등 10대 과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14~17).

파. 대학 교수·학습

앞선 주제어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201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물론 2010년대 전후에도 대학입학제도, 대학 교육재정 분석,

대학 평가 및 진단 체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고등교육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2010년대에는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학 현장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대학의 교수·학습의 질에 있음에도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3년부터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가 매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대학 교육과 교육 현장의 실제 모습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 수행된 「한국 대학교육의 실태 및 질적 수준 분석 연구(RR2007-13)」와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II)(RR2008-14)」에서는 대학의 교수·학습에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대학의 질’ 개념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학의 질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는데, 대학의 교육적 실천 및 과정을 의미하는 과정 차원을 교수(teaching), 수업(course), 평가·피드백, 학습지원체제 등 4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 영역과 학습량, 수업 참여, 교육적 경험 등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학습활동 영역으로 설정하는 등 후속된 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III-93】 2010년대 이전 대학 교수·학습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07	한국 대학교육의 실태 및 질적 수준 분석 연구(RR2007-13)
2008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II)(RR2008-14)

보다 직접적으로는 2010년부터 3년간 진행된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I, II, III)」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동시에 학습 과정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 도구가 초기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에서 활용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136~137).

【 표 III-94 】 2010년대 대학 교수·학습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Ⅰ,Ⅱ,Ⅲ)(RR2010-17, RR2011-13, RR2012-17)
2013~2021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3-2017)(Ⅰ~Ⅹ)(RR2013-13, RR2014-10, RR2015-10, RR2016-17, RR2017-12, RR2018-21, RR2019-19, RR2020-12, RR2021-10)

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는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은 둔 대규모 조사연구이다. 애초 5년 연구를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2022년 현재 10년 차 연구에 접어들었다.

2013년 4년제 일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연구는 2015년에는 대학교수, 2016년에는 전문대학생, 2017년에는 전문대학 교수로 설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매년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모형과 측정에 대한 수정·보완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2021년 기준 조사에 참여한 대학은 일반대학 92개교, 전문대학 22개교이며, 조사 참여 인원은 일반대학 학생 53,393명, 교수 4,317명, 전문대학 학생 8,067명, 교수 576명에 달한다. 또한 참여대학에는 대학별 조사 결과와 분석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자체적인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은영 외, 2021:31~33).

하. 교육 환경·시설

교육 환경과 시설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학교의 환경과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과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최근 교육 환경과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차원을 뛰어넘어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고 융합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래 교육과정과 학습활동의 변화에 맞춘 소프트웨어의 변화와 함께 교육 환경과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혁신적인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교육 환경·시설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06년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학교시설 복합화,

교과교실제 지원, 교육시설민간투자 사업 평가, CPTED 등 학교 환경 및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95】 2010년대 이전 교육 환경·시설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1998	초등학교 열린교육시설 모형개발 연구(CR98-53)
2006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교습과정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CR2006-34)
2007	2006년도 교육시설 BTL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RR2007-25)
2007	친환경 교육시설 모형개발 연구(1) : 에너지 절약 학교 시설 모형(2단계)(RR2007-29)
2007	교육시설민간투자사업의 표준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연구(CR2007-32)
2007	교육시설 전문운영법인 설립 및 BTL사업 참여 모델 연구(CR2007-34)
2007	친환경 교육시설 모형개발 연구(1) - 에너지 절약학교 시설 모형(1단계)(CR2007-36)
2007	교육안전망 구축 지원 연구 -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RR2007-11)
2008	교육시설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CR2008-73)
2009	교육시설의 교육효과 진단 연구(RR2009-35)
2009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운영 방안 연구(RR2009-36)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환경 및 시설 관련 연구는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학교 안전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RR2016-26)」이나 「학교시설의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 연구(RR2017-22)」등이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과제로 진행된 대표적인 학생 안전 관련 연구들이다.

이에 반해 2010년대 후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융합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3년 연구(2018~2020)가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진행된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연구(I, II, III)(RR2018-17, RR2019-13, RR2020-26)」는 교육과정 변화,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 행정 체계의 변화 등과 같은 학교 재구조화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시설 재구조화(Educational Facility Restructuring)의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018년에 진행된 1차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교 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과목별 소요 공간 특성과 국내 학교 시설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의 유형에 따라 블렌디드 클래스룸, 러닝센터, 메이커 룸, 스팀 룸, 멀티미디어 아트 룸, 멀티미디어 뮤직 룸, 퍼포먼스 룸, 리빙스튜디오 등 8 가지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100-101). 2019년의 2차 연도 연구의 경우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변화 속에서 미래의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이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6가지 학교 공간의 역할 정립, 12개(교실형 4개실, 허브형 8개)의 교수 학습활동 소요 공간을 제안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130~131). 마지막으로 2020년의 3차 연도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학교 공간 조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형태에 적합한 학교 건물의 배치와 평면 유형을 개발·제안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100~101).

【표 III-96】 2010년대 이후 교육 환경·시설 관련 연구

연도	연구제목
2010	교육시설정책지원(BTL)연구 :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RR2010-31)
2014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운영방안 연구(CR2014-69)
2014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영상보안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RR2014-37)
2015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내진성능 통합평가 모형 개발(RR2015-38)
2016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모형(안) 개발(CR2016-14)
2016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RR2016-26)
2017	학교시설의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 연구(RR2017-22)
2018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RR2018-17)
2019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I): 미래형 학습공간 모형 개발(RR2019-13)
2020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II): 학교의 대지 조건과 배치 및 평면 유형 개발(RR2020-26)
2021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CR2021-06)

6. 소결

본 장에서는 KEDI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수행해 온 다양한 연구 주제 중 시대별로 의미 있는 연구 주제(총 50개)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연구 주제들이 의의가 있으나 각 시대별로 교육정책 기여, 법제화, 사회 및 학계에서의 이슈화, 후속 연구(사업)의 시초, 대규모 예산 소요 장기 연구, 당대 사회적·교육적 특성 및 요구 반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연구주제 50선의 목록은 <표 III-97>과 같다.

【표 III-97】 KEDI 50년 시대별 연구 주제 50선

연대	주제 수	연구주제
1970	4개	새 교육체제(E·M project: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교육발전
1980	11개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서 정책, 사고력 신장, 교원 수급, 표준교육비, 지방교육재정, 사교육 경감, 대학입학시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방송, 컴퓨터보조학습
1990	10개	교육 비전 수립, 교육열, 교육 자치제, 유아교육 체제,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영재 교육, 직업 교육, 국가 교육 통계, 교육 연구 DB(데이터베이스)
2000	11개	국제 연구·협력(OECD, ODA),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학교 폭력, 교육복지, 평생학습, 검사도구, 대입전형, 학제, 다문화 교육, 교육종단연구, 학교교육 수준·실태
2010년대 이후	14개	고등교육재정, 대학공유체제, 대학평가·진단,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소규모학교, 미래교육, 온종일 돌봄, 인성교육, 탈북청소년교육, 교육여론조사, 교원정책, 대학교수·학습, 교육환경·시설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구 주제 50선의 의미를 시대별로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0년대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4개로 ‘새 교육체제(E·M project: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교육발전’ 등이다.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해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새 교육체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의무교육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학교 의무교육’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입시 및 교육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관련 연구와 사회변화 대응 및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교육발전’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1980년대는 연구 팽창·발전기로 비약적인 연구의 양적 확대와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기이자,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 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방대한 연구 실적을 쌓고 독보적인 교육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주제로 선정된 것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서 정책’, ‘사고력 신장’, ‘교원 수급’, ‘표준교육비’, ‘지방교육재정’, ‘사교육 경감’, ‘대학입학시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방송’, ‘컴퓨터보조학습’ 등 11개이다. 1980년대에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로부터 처음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임 받아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수많은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과통합 작업(‘교과서 정책’연구)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깊은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개발과 불안정한 교원 수급 문제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관련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연구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학계 및 정부 부서에서 논의만 무성했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도전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중등교육 여건 악화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보 및 효율적 분배·활용 방안 탐색, 교육자지체 실시에 대비한 ‘지방교육재정’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과열과외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과열된 과외수업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교육 경감’ 및 ‘대학입학 시험’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육의 대중화와 교육방법의 첨단화에 앞장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연구 및 운영을 통해 중등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하였고, 고등학교 대상 ‘교육 방송체제’를 유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전환하여 현재 교육전용방송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으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이른 시기부터 ‘컴퓨터보조학습(CAI)’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의 주요 수행 연구주제는 10개로, ‘교육 비전 수립’, ‘교육열’, ‘교육 자치제’, ‘유아교육 체제’, ‘통일 대비 교육’, ‘민주시민 교육’, ‘영재 교육’, ‘직업 교육’, ‘국가 교육 통계’, ‘교육 연구 DB(데이터베이스)’ 등이다. 이 시기의 연구 주제는 크게 새로운 교육 비전 및 체제 연구, 사회 문제 및 요구 대응 연구, 제도적·정치적 변화 부응 연구, 기관 조직 및 역할 증대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는 새로운 교육 비전과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는데, 1980년대의 교육개혁의 다양한 방안 및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을 통해 그려진 청사진에 따라 교육 비전과 교육개혁의 상,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연구(‘교육 비전 수립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직접적인 정부 정책으로 채택·실천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공교육화를 비롯한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반조건들을 마련하는 ‘유아교육 체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한국교육개발원, 2002), 종합적인 직업기술 교육 체제의 발전 방안 수립에 목표를 둔 ‘직업 교육’ 관련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사회 문제 및 요구와 관련하여 교육경쟁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한국인의 ‘교육 열’에 대한 실증적·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꾸준한 요구와 민주주의 교육 내용 체계 및 교육 원리에 대한 기관 차원의 문제의식으로 학생, 교직원, 일반 성인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장기 중점 과제(1989~1993년)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었고, 1990년대에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되면서 통일 대비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성화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끝으로 1996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센터가 설치되면서 ‘영재 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교육통계발간사업을 인수받은 4년(1996~1999년) 간 우리나라 교육통계 사업은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1999년에는

주요 통계 미래 예측, 여론조사, 국제교육 통계조사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1990년대의 ‘국가 교육 통계’ 관련 연구들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교육통계센터(2017년 지정)로서 기능하며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체계적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의 토대가 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 교육 통계 사업을 맡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연구자들의 효율적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도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교육개발원의 멀티미디어연구센터(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한국교육방송원(1997년 출범) 이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7년 설립)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년 출범) 분리·독립 등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기능의 분화 및 재편이 이루어지면서(한국교육개발원, 2002) 2000년대부터 연구 주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대의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 연구·협력(OECD, ODA)’,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학교 폭력’, ‘교육복지’, ‘평생학습’, ‘검사도구’, ‘대입전형’, ‘학제’, ‘다문화 교육’, ‘교육중단연구’, ‘학교교육 수준·실태’ 등과 같이 11개가 선정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주제는 크게 연구·교육 체제의 확장 및 발전, 교육문제 해결, 취약집단 교육복지, 데이터(증거) 기반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OECD 사업과 관련된 연구, 공적개발원조(ODA) 연구와 같은 ‘국제 연구·협력’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평생교육법’(2000년 3월 1일)의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체제 종합 발전 방안과 관련된 연구와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관련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사업들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이희수 외, 2000),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에 ‘학제’ 개편 계획이 포함되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김영철 외, 2006: 3).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교육 불평등, 학교폭력, 대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문제가 제기되고 심화됨에 따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악화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2002년 새 대입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가 한층 첨예해지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4년 고교-대학 연계의 관점에서 대입전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8년’이라는 교육정책기관 역사상 초유의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국가 수준의 중장기 실천연구의 모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다양한 교육취약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나 농산어촌 학교와 같은 특정 집단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고,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중기계

획(2009-2012)” 수립 시 국가 수준의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는 데이터(증거) 기반 연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교육연구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종합적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와 종단적 교육조사 연구를 위한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한국 ‘교육종단연구’는 2005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 연구로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 효과와 대안 모색의 핵심적 역할 수행, 논문작성과 학술대회에 활용 등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학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박경호 외, 2021: 3),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 조사 연구는 ‘학교교육의 수준 및 실태’에 대해 횡단적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변화 추이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였다(박경호 외, 2015: 4).

2010년대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재정’, ‘대학공유체제’, ‘대학평가·진단’, ‘고교다양화’, ‘자유학기제’, ‘소규모학교’, ‘미래교육’, ‘온종일 돌봄’, ‘인성교육’, ‘탈북청소년교육’, ‘교육여론조사’, ‘교원정책’, ‘대학교수·학습’, ‘교육환경·시설’ 등이 있다. 총 14개 연구 주제가 선정되었는데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함께 특히 고등교육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대 들어 정부의 고등교육 질 제고 및 대학경쟁력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란 등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재정’(고등교육 재원 확보 및 배분, 운용 등)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고등교육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대학공유체제’와 관련하여 생소한 공유(성장) 개념 정립부터 여건 구축 방안까지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에 따라 대학평가(진단) 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적 활용을 위한 대학평가 연구들을 수행하였고,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되며 정책 당국과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교육 실태 및 수준에 대한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10년대 이후 ‘고교다양화’ 정책을 직접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천 등과 관련한 연구,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착이나 평가 방안, 전면 확대 또는 운영 개선 방안, 종단연구 및 정책 성과분석 등의 연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나 성공사례 분석,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한 연구, 본격적인 돌봄 및 ‘온종일 돌봄’에 대한 연구(초기-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중심으로 한 돌봄 정책에 대한 연구, 중반 이후-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와 정책에 대한 연구),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인성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연구,

2009년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 변화가 관련 연구 추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래 교육비전 연구나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 조성 방안 연구 등 ‘미래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교원정책’이 다시금 주목 받게 됨에 따라 교원 수급 문제와 “교원 정책 혁신”에 대한 연구, 교원에 대한 대규모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융합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3년 연구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교육 환경·시설’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끝으로, 교육과 관련된 현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되어 지속되고 있는 ‘교육여론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조사로, 각종 언론 및 연구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높다.

이상으로 지난 50년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시대별 연구 주제 50선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방대한 연구 실적을 쌓으며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즉,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주제 및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선도, 사회와 학계에서의 이슈 대응, 사회적·교육적 특성 및 요구 부응, 다양한 후속 연구 및 사업의 시초로서의 역할 등을 통해 교육정책을 비롯하여 학문 및 교육 사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